

계단식 논(밭)도 훌륭한 도 · 농녹색교류 소재이다

- 일본 福岡縣 浮羽(우키하)町の 예를 중심으로 -

일 본은 섬나라이며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계단식 논이 많다. 이 계단식 논은 쌀 생산만하는 곳이 아니다. 홍수와 산사태를 막고 물을 정화하며 다양한 생물이 살도록 하는 국토보전의 녹색댐이다. 그리고 주변 자연과 어우러져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어느 예술가도 흉내 낼 수 없는 대지예술(Land Art)이자 문화유산인 것이다.

계단식 논은 조건 불리지역이다. 급경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토심이 낮고, 기계화 영농과 용수 확보가 곤란하다. 따라서 평지의 논에 비해 경작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촌인구가 줄고 고

령화되면서 효율성이 낮은 이 계단식 논이 휴경지나 폐경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후쿠오카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키하 마을에도 계단식 논이 있다. 물론 이곳도 휴경이나 폐경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우키하町과 지역 주민들은 이 계단식 논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이 계단식 논에 논두렁에 꽃무릅(彼岸花)이라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왔다. 계단식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관리·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두더지 같은 설치류가 논두렁에 구멍을 파게 되면 물을 모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논두렁에 심은 꽃무릅(피안화) 뿌리에서 독성물

질이 분비되므로 두더지가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9월이면 꽃무릅의 붉은색 꽃과 황금색 벼가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이 무렵 음악회와 사생대회, 사진대회를 개최하고 '우키하의 계단식 논 탐방(柵田 in 探訪)'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도시민들을 마을로 유치한다. 1997년부터는 계단식 논에서 생산된 쌀과 마을의 청정 지하수를 묶어《PURE 우키하》라는 관광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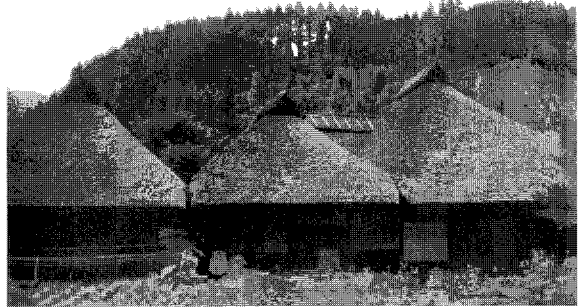


▲ 도농교류의 중요한 소재로 발굴된 우키하의 계단식 논



으로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있다. 1998년부터는 계단식 논 1구획 100㎡를 40만원 정도에 도시민에게 분양하는《계단식 논 오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98년에는 50구획의 오너(분양자)를 모집하였는데 213명이 응모하였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분양 받은 도시민들은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아와 주민들과 함께 전통적 방식으로 봄 부터 가을까지 직접 벼 농사를 짓는다. 마을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면서 소득을 높이고 도시민은 농업과 농촌을 체험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농촌경관과 전통적 농사법이 보전된다. 쓸모 없게 된 땅, 계단식 논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도농녹색교류 상품이 된다.

또한, 우키하에는 쿠니타케양(國武庵)이라는 상호의 민박집이 있다. 이 집은 85년 된 전통민가인데, 3대가 함께 살고 있으며 집주인 쿠니타케씨는 지방의회 의원이다. 쿠니타케씨 부부는 1995년부터 민박을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친척과 자녀 친구들이 죽순이나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자주 방문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부인인 쿠니타케 히로시씨가 지방정부에서 주선한 유럽 시찰을 다녀와서 자신감을 얻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민박을 시작했다. 이 민박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방문객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늦게까지 家族史와 마을 이야기를 방문객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봄에는 밥짓기, 곤충채집, 별자리 관찰, 가을에는 감서리, 벼 베기, 밤 줍기, 겨울에는 마 채취, 떡 만들기 등 계절마다 독특한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96년부터는 매년 9월 첫째 토요일 밤에 마당에서 야외 음악콘서트를 열고 있다. 1996년에는 전통 대나무피리 연주, '97년에는 재즈 콘서트, '98년에



▲ 일본의 전통생활문화체험이 가능한 가야부키 民家

는 첼벌로 콘서트, '99년에는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물론 기획, 티켓 제작, 섭외, 홍보, 진행 모두 가족이 직접한다. 방문객 중에는 그가 생산한 농산물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98년 6월에는 '이모(いも:고구마)회원'을 조직했다. 연회비 20만원 정도를 내면 그가 직접 생산한 쌀 10kg, 포도 2kg, 감 5kg, 고구마 5kg, 죽순, 등나무와 죽세공품 등을 보내준다. 쿠니타케씨 부부는 어디까지나 농사가 주업이며 민박은 농사일 틈틈이 하는 즐거움이라고 했다. 민박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게 되면 자신의 생활리듬도 흐트러지고 방문객도 재미가 없을 것이라며 결코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농촌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농업인 스스로 농촌생활을 즐겁게 영위해야 그래야 방문객도 즐겁게 지내다 갈 수 있다. 주민이 기뻐하지 않는 농촌생활을 도시의 방문객은 즐길 수 있겠는가? 지역민이 자부심을 갖지 않는 자원을 보러 방문객이 오겠는가? 살기 좋은 마을이 최고의 도농녹색교류 장소이다. ㉞

(편집자주 : 본 원고는 『경기도 녹색농촌체험마을 가꾸기』2003.1에서 발췌한 것임)